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네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32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우리 교회당에서, 5월 8-11일 수요일 I 부 예배는 갈릴리홀에서

제32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오는 5월 8일(월)부터 11일까지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막 14:42)라는 주제로 열리는 금번 기도회는 전국에서 약 3천여명의 목사와 장로가 참가할 예정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일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 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기도회 기간 중 매일 새벽기도회(오전 5:30~6:30)와 오전(오전 10:00~12:00)·오후(오후 2:00~4:00) 강의, 그리고 저녁 집회(오후 7:00~9:00)로 계속되는 3박 4일 간의 모든 진행과 담당은 총회 임원

들과 실무진들이 하게 된다.

또한 이번 기도회의 강사는 우리 교회 당회장 신성종 목사 외에 김덕신, 정석홍, 길자연, 김윤배, 정성구, 김의환, 최병남, 이성현, 최기채 목사 등이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는 교단 내의 전국 목사, 장로들이 모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서로 교제하는 우리 교단의 큰 행사 중 하나이다.

대회 진행관계로 이번주 수요일 I 부 예배는 갈릴리홀에서 드리게 되며, 이날은 구역장 준비 공부를 하지 않는다.

수요일 II 부예배는 목사·장로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같이 오후 7시에 모이게 된다.

5월, 가정의 달 맞아 새가정부에서 가정세미나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가정사역 전문가 초빙, 5월 첫주부터 3주 연속으로

신록의 계절 5월이 왔다. 매년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며 여러 가지 행사로 가정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가정에 관한 갖가지 행사들로 만발하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이 갖는 의미는 무척 중요하다. 가정이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이런 가정들이 모여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1979년에 결혼한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학교 새가정부를 개교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다. 새가정부에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동일한 상황에 있는 가정끼리의 교제를 통해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주님 안에서 견고하고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일과, 부부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자녀 출산에 따른 문제 등을 적절하게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대응하는 교육과 훈련들을 하고 있다.

새가정부를 거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

로 새가정부의 중요성을 말하고 현재 회원들도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새가정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교회는 5월을 맞으며 첫주일을 어린이주일(5월 7일)로, 둘째주(5월 14일)는 아버지 주일로 각각 지키며 가정과 부모, 자녀 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시간들을 가지며 또한 각 전도회에서는 5월 중 가족 모임들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교회학교 새가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가정세미나’를 계획하고 5월 첫주일부터 3주간 동안 특강시간을 마련했다.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골 3:26)이라는 주제하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가정 사역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매 주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갈릴리홀에서 모이게 된다.

총회의 부부들은 이번 기회에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신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된다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주일별 강의 내용과 강사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95 예수사랑 큰잔치

5월 14일(주), 전체 교인 총출석 주일로

다음 주일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는 한편 교회는 이 날을 전 교인 출석의 날로 정하고 등록된 전 교인이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 드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구역에서는 이번주 금요일 구역예배를 마치고 다함께 그동안 교회 출석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집을 일일히 심방하여 교회 출석을 권유할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예수사랑 큰 잔치를 1개월 정도 남겨놓고 전 교인이 마음을 합하는 의미도 있고 1년에 한 주일 정도 이렇게 전 교인 출석의 날을 정하고 장기적

석자를 찾아도 보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일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월 둘째 주일인 14일은 교회 아버지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어서 함께 모여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에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각 교구와 각 구역에서는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아 진정한 전교인 출석 주일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일만명이 한사람씩 일만 영혼 구원한다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주요 일정

- 특별새벽기도회 / 5월 22일(월)~5월 26일(금)
- 초청전도집회 / 6월 7일(수)~6월 9일(금)
- 예수사랑 큰잔치 / 6월 11일(주일) I-V부 예배

-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기도제목 -

-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교회와 개인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 태신자를 바로 정하게 하시고 결실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 모든 전도운동, 기도운동들이 힘있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 9595

95년도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하여
매일 오후9시부터 5분간 기도합시다.

9595 ·

5월 7일(주일)
크리스찬의 부부생활

김수지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보스톤대학 간호학 박사
· 기독교간호사회 회장
· 전선미상담실 운영
· 남서울교회 집사

5월 14일(주일)
기쁨 넘치는 가정

송길원 목사
· 부산 새중앙교회 협동목사
·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 소장
· 수필가
· 한국크리스찬문인협회 회장

5월 21일(주일)
성령 충만한 가정

현순원 전도사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 졸업
· 미국 뮌헨교회 상담전도사
· 상담교육원 원장

연합 여전도회 전도세미나

우리 교회의 전 여전도회(하나, 에스더, 루디아, 마리아)가 연합으로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전도세미나를 갖는다. 오는 5월 16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갖게 될 이 세미나는 장년

1부 지도인 이한수 목사(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전도사명)와 이진숙 사모(21세기 기독교 여성의 역할)가 강사이다.

본당에서 열릴 이 세미나는 우리 교회 전 여성도들이 모이게 된다.



충청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35 ●

일곱 대접재앙(1)

(계 16:1-9)

일곱 대접재앙은 곡식추수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 즉 농부가 알곡을 추수해서 곡간에 저장하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성도들을 추수하시는데 여기에 끼지 못한 가라지 같고 썩정이 같은 인생, 포도추수에 해당하는 염소에게 내려지는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1. 첫번째 대접재앙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고 했습니다. 첫번째 대접재앙은 그 심판의 대상이 땅입니다. 여러분,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집을 짓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땅에 임하는데 구체적으로 땅의 어디에 임할 것이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아주 악하고 독한 독종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상거래까지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때는 사탄의 영향력이 커서 경제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뱃지를 달고 다녀야 살아남을 수가 있듯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그 사회는 김일성 뱃지 대신에 666이라는 인을 받은 자만이 상거래를 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가 옵니다. 그래서 일반대중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거의가 이마와 오른손에 이 표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바로 악하고 독한 독종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독종이 있습니다. 또 욥기 2장 7절에 보면 욥이 독종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이 독종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독종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그 규모가 어떤 한 두 사람이나 단체만이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666의 표를 가진 자들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 두 번째 대접재앙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의 대상이 바로 바다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도 비슷

한 재앙이 있었습지만 그것은 나일강만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대접재앙은 어떤 제한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이고 우주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공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거지도 그 누구도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공기 공해도 심각합니다만 물공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신문에서 보셨겠습니까. 대만에서도 일본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물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물공해가 심해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어디 물을 마음대로 먹습니까?

남해 청정해역도 오염되어가고, 동해바다조차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합부로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합니다. 산업폐기물을 여기저기에 버리고 바다에는 핵폐기물들을 버리고, 머지않아서 바로 본문에서 예언되어진 그대로 바다가 온전히 오염되어서 피처럼 먹을 수 없는 그런 물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이나 그 밖의 공장폐수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는 망합니다.

3. 세 번째 대접재앙

4절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땅에, 다음에는 바다에, 다음에는 강에 이렇게 점점 재앙의 범위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강 뿐입니까? “물 근원에 쏟으매”라고 했습니다. 물 근원, 샘에까지 쏟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문명의 중심이 되는 곳을 보면 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과 샘물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의 근원이 피같이 되니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로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모든 물들을 피로 변화시키는 이유를 본문 6절에서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이 주의 종들을 죽이고, 선지자,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우리의 힘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 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난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말고 우리의 힘이시요, 반석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제단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제단은 바로 순교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심판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교자들이 외친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보복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공의로운 것입니다.

4. 네 번째 대접재앙

8절과 9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재앙의 대상이 천체,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태양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이는 지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은 단순히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의 모든 생물들이 자라는 것은 빛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은 이제 지구가 마지막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보다 가까워지면 아마 다 타 죽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멀면 다 얼어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아주 묘하게 유지시키십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되어 지구와 태양이 가까이 가서 타 붙는 날에는 지구가 순간에 숯덩어리처럼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대접재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넷째 천사가 태양에 대접을 부으니까 태양의 열이 올라가서 그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태양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지구상에 온도와 광선을 공급해서 우리 인류가 살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인도나 미국 같은 곳에서 여름에 너무 더워서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구 전체가 온난화다 해서 여름이 되면 너무나 더워져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구의 사막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식량문제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한 편으로는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태양열을 인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레이저 광선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무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선한 일에 태양광선을 이용하면 좋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게 되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 번째 재앙이 직접적으로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서 태우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들이 태양광선을 이용해서 만든 무기가 재앙으로 임할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태양이 우리 인간들의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5.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로 인간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교훈해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만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기 될 때에, 그것은 재앙으로 변합니다. 둘째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은 심은대로 거둡니다.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마시게 하십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인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모든 불행이 바로 죄에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1-3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큰 환난이 임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특별한 장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우리의 힘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 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난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말고 우리의 힘이시요, 반석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삶에 생각하며 □

삶의 뒤편에서

이근주

<청년2부 회원>

매섭고 차가운 날씨로 움츠려들던 어께가 이젠 봄의 문턱에서 활짝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래서인지 꽃샘바람에 묻어오는 꽃내음이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느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어김없이 세월을 다투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매년 매해 우리 곁에 다가서는 봄이지만 마냥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나의 철없던 영적인 미성숙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대하여 또 나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았던 실수투성이의 생활, 아집과 고집, 자존심으로 점철되었던 영적인 미성숙이 또한 그 만큼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들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누구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전에 나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의 지혜와 명철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히 맞서려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되돌아 볼 때 진정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하늘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러나 '이제 다시 서리라' 다짐해 본다. 그다지 의식해보지 못했던 나의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이란다. 그래서인지 세상에 대해서도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내세울 것 없음에 더욱더 작아지는 나를 느낀다. 그러나 감사한 일은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에 있고 언제나 삶 속에서 아주 미세한 부

분까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일이다.

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실 얼마전까지만해도 나의 방황은 끝이 없었다. 웬지 모를 조급함에 그리고 쓸쓸함에 그 무엇보다도 나의 육신을 추스르기에 바빴던 것 같다. 그래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았던 것 같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제 영적으로 순종하는 새 봄을 맞이하고 싶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정말 귀하고 거룩한 많은 열매들을 간직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툼을 멀리한 생활과 함께 '주시옵소서'를 연발하는 나의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 값진 땀방울을 흘려야겠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 아무도 계수할 수 없는 인생의 뒤편에서 지난날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진정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되새겨 본다.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삶도 이 말씀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조급함을 뒤로하고 인내하며 나신보다 남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히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간구해 본다.

<1995. 3. 어느 아름다운 봄날에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리며>

• 어린이 주일에 부치는 시

만들어 주소서

하한나(사랑부 교사)

주님!

하늘의 향기 맡으며 바람과 속삭일 수 있다고

믿어질 때부터는

도로 아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향기없는 꽃들에게

그다운 향기 찾아줄 수 있다고

자신할 때부터는

저를 비둘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신 날개 깃으로

은빛 꽃가루 뿌리게

비둘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맑게 뿜는 눈빛에서 진실로

정다운 향 가득 베이는

그런 사랑을 알게 되는 때부터는

주님! 부디 저를

한 방울 눈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불을 타고 흘러

그 심정 깊숙히 들어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의 싹을 틔우게

칼럼 / 역삼동에서

광고홍수시대 - 천국의 홍보부장

김찬곤

(목사, 13교구 지도)

흔히 말하듯 우리는 PR 시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가장 효력을 느끼게 만드는 홍보물은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가 상당한 효력을 미치는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개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PR은 대외관계(Public Relations)를 의미합니다. 일방적인 선전이나 홍보가 지나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린다"는 비아냥도 생겨났습니다.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문 사이에 광고지 한 두 장 안 끼어 있을 때 없고 아파트 우편함은 광고 우편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하면 길거리는 온통 다양하고 현란한 광고판과 네온사인 일색입니다.

TV의 시청각적 영상효과를 들지 않더라도 TV광고의 매력과 위력은 더 말할 나위없이 대단합니다. 요새 아이들은 TV에서 나오는 광고를 노래 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줄줄 외우고 있는 현

실입니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광고에 나오는 물건 외에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탁기 속에 사람이 들어가 빨래처럼 돌아가는 세탁기 광고를 보고 국민학교 이학년 어린이가 다섯 살 난 동생을 놓고 실제 작동시켰던 사건이나, 강남 모 국민학교에서 출제된, '가구가 아닌 것'을 묻는 질문에 학생 대다수가 침대라고 응답했던 웃지못할 만화 같은 일들은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믿음(광고에 의한 미혹)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엿보게 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광고란 돈을 벌기 위해 가능하면 오랫동안 사람의 머리를 사로 잡는 과학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캔터베리 대주교는 말하기를 "나는 광고를 보지 않는다. 만일 내가 광고를 본다면 나의 소원을 키우느라고 모든 시간을 소비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업들

은 이 광고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돈과 사람들을 투자하여 광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자기들의 물건들을 사람들에게 팔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밤낮으로 광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편의 광고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반복을 하는지 모릅니다. 샴푸 광고를 위하여 12시간 가까이 머리를 감아야 했다는 연예인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한, 즉 돈을 벌기위한 투쟁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며 최고인양 선전하기 위하여 엄청난 것을 투자하여 그것에 대한 효과를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선전에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2:9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홍보부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 진리에 대하여 부끄러워 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에 최대의 행복과 만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선전해야 할 아름다운 덕이 얼마나 좋은 것인줄 확실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지금도 행복을 갈구하면서도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너무나 최고의 것입니다.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소개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실망하고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여 이 진리를 선전하여야 합니다. 외적인 결과를 위함이 아니라 참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바울의 고백에 동참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홍보라면? 오로지 복음을 PR할 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사랑을 체험하며 예수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95 예수사랑 큰잔치

1995년 6월 11일

전도대상자 어떻게 정하나?

예수사랑 큰잔치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교구 각 구역과 각 전도회가 열심히 전도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금년엔 예년과 다른 분위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전도대상자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눈에 띈다.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전도대상자를 찾는 방법을 소개한다.

1. 가족 중 불신자
2. 믿다가 낙심한 자
3. 친척 중 불신자
4. 교회 출석 중도포기자
5. 친구 중에 초청할 자
6. 세든 사람 또는 주인
7. 이웃 사람
8. 직장동료
9. 친목회원
10. 반상회원
11. 동네가게
12. 아이들 부모
13. 현역군인
14. 이사 온 분
15. 파출소 직원
16. 동사무소 직원
17. 동창생
18. 단골손님

19. 신문배달원
20. 거래처
21. 우유·야구르트 판매원
22. 화장품 판매원
23. 병원, 은행
24. 경로당 노인
25. 지하철
26. 역전
27. 사거리
28. 축호(가정) 방문
29. 고향사람
30. 취미 그룹에서 만난 사람
31. 자모회, 학부모회
32. 거리에서 만난 사람
33. 그외 사람

이상과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모두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익히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찾으려고 하기에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전도대상자를 찾았으면 1) 전도대상자를 기록하고 2)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3) 찾아가서 전도하며 4) 사랑을 베풀고 5) 교회로 인도하고 6) 신앙이 성장하도록 보살펴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5/7(주일), 소명중앙교회 부흥회 설교
· 신성종 목사님 : 5/8(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5/9(화),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강의
5/11(목), 합동신학교 chapel 설교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3차 세례식과 성찬식을 축복하소서.
3.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생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형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지켜주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접촉하여 열매맺게 하시고 예수사랑 큰잔치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95 세계선교대회 '대학생 미션 2000' 5월20일(토) 오후 3시

95세계선교대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대학생 미션 2000'이 5월20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모인다. 이날 모임은 약 10만 여명이 모일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온 교우가 참여할 수 있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제1 교구 전체모임

제1교구는 95년도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면서 전 교구 식구의 단합과 목표를 향하여 일치된 힘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 교구 식구모임을 갖는다.

- 일시 : 5월 18일(목) 오후 7시
- 장소 : 만나홀(선교관 지하1층)

참 목재가 되시며 스승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삼위일체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영적전쟁이 치열한 이곳에서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 훈계와 채찍이 그리고 사랑이 스러질듯한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늘 저를 붙들고 계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제게 양약이 되어 저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므로 주님의 군사로서 늘 힘을 얻고 있는 것과 부족하고 적은 저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저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듯한 더위와 가끔씩 역수같이 쏟아지는 장마는 온 Paraguay를 나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Centro de vida 건축이 2월말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일하는 인부들은 더우면 더운대로, 비오면 비오는데로,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어 저희들의 가슴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성전건축이 1년 1개월이 넘어도 진척되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건축업자 Carlos의 간교한 술책과 인부들의 게으름, 간혹 영똥한 생떼를 쓰는 자, 거기에 재정까지 바닥이 나 저희들의 상황은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있는 에스겔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겔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도 함께 계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이상을 제회들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Lambare 지역의 유일한 Mission School인 San Pablo 학교를 인수하게 되어 영아부, 유치부, 국교생 1-6학년들을 운영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학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파라과이 오경희 평신도 선교사



저희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저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교는 7년전에 이르헨사람인 Bauza 목사님에 의해 시작되어 왔는데 별안간 위암으로 계속해서 학교운영이 어려워지자 비품과 학생들을 저희에게 인수해 주셨던 것입니다. 필요한 비품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 그리고 이 학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율동팀(Grupo de Minica)이 한동안 침체에 빠졌었습니다. 제일 먼저 Cynthia Chavez라는 아이가 부모의 반대로 율동팀을 그만 두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까지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의 리더인 Roxana(18살)와 함께 가정 심방을 여러 차례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열도록 한 결과 다시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못나오게 되었던 정확한 원인은 바로 부모들이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Raguel Sena라는 아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그만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어 율동팀 연습에 못나옴으로 탈락될 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문제는 물질보다도 그의 영성에 많은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어 Roxana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Raguel의 일을 그만두고 율동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Lariza라는 아이는 올해 15살이 되는데, 이 나라의 큰 풍습이 15살 생일잔치를 집을 팔 정도로 거창하게 하는데, 그 생일잔치에 쓸 돈을 벌기위해 주일에 일을 하고 있어서 현재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5살 생일잔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Lariza가 다시 하나님이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Analia(13살)이라는 아이가 새로 율동팀에 들어왔습니다. 제1차 Soldado훈련을 받았었고, 3년전에 헌신했던 아이였는데 그동안 방황하다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그룹 'EVIN'은 지난 1월 29일에 멤버들이 정

식으로 다시 임명받았습니다. 어린이 심방을 목적으로 탄생된 이 그룹은 Jorge Ariel(20살), Ruth Burgos(17살), Marcia Ortiz(17살), Hernan(17살)입니다. Hernan은 얼마전 침체기에서 벗어나 요즘은 어린이 전도에 도전을 받고 열심히 심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성장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가는 모습을 보니 저희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동역자 여러분의 기쁨도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주 2월 14일 개강한 교사강습회에서 '글없는 책'으로 전도하는 법을 배웠는데 어린이 심방시 이 방법을 많이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어린 영혼들이 변화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께서 친히 저와 함께 하셔서 갈 길을 주목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저희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저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이 곳 Paraguay에도, 영적전투 중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있으며 마른 뼈다귀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동역자 여러분의 놀라운 상급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1995년 3월
Paraguay에서 오경희 드립니다.